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월간지

월간
카투사
THE KATUSA NEWSPAPER

8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s
Monthly Publication

2006³â 4¿ù 31±Ç 3È£

FRONT PAGE

미8군 사령관 지휘권 이양식, 용산 기지에서 열려

글 / 2지 역공보실 - 데이빗맥널리
사진 / 51통신여단 - 상병아만다다이어

나이트 필드에서 있었던 지위권 이양 행사를 통해서 미 8군의 명령/지휘계통이 바뀌게 되었다. 신임 데이비드 P. 발코트 중장은 전통적인 사령관 취임식을 통해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B. B. 벨 대장으로부터 부대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발코트 중장은 " 우리는 변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라는 말과 함께 " 미8군은 미래의 경향에 발 맞추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변화를 계속할 것" 이라고 연설했다. 또한 발코트 중장은 " 세상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고 덧붙이며 한반도의 방어를 위한 두 나라간의 선의, 결심 그리고 약속이 바로 그것들" 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벨 대장은 발코트 중장을 ' 훌륭한 지휘관' 으로 칭하며 " 우리는 이 지도자가 미8군, 주한미군, 연합사에 가져다 줄 특별한 경험과 통찰력을 환영한다" 고 연설했다. 발코트 중장은 최근 독일에서 유럽주재 미군 및 미7군의 참모장을 역임하였다. 발코트 중장은 미군 학교를 졸업하고 메사츄세스주의 치코피 폴스에서 태어나 1973년에 군에 임관하였다. 그는 역시 메사츄세스 출신인 다이앤 램버트양과 결혼하여 슬하에 다니엘, 데이비드, 미쉘 세 자녀를 두고있다.

공식 지위권 이양 행사 후에 용산 미군기지 소재 DHL (Dragon Hill Lodge)에서 있었던 추가 실내행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전 미8군 사령관 찰스 C. 캠벨 중장과 현 미8군 사령과 데이빗 P. 발코트 중장.

용산 미군기지내 나이트 필드에서 있었던 미8군 사령관 지위권 이양 행사가 끝난 이후 부근의 DHL(Dragon Hill Lodge)에서 추가적인 행사가 있었다. 사진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B.B 벨 대장이 미8군 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데이빗 P. 발코트 중장 내외를 직접 소개하고 있는 모습.

발코트 중장에게 지휘권을 양도한 찰스 C. 캠벨 중장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미8군 사령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캠벨 전 미8군 사령관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 " 우리 모두는 지난 수 십년간 세계에서 가장 돈독하고, 가장 활발할 뿐 아니라 가장 성공적인 동맹 관계를 이룩해 왔다는 데 대해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다.

벨 대장은 " 그동안 캠벨 중장이 이뤄놓은 업적들을 말하자면 하루 이상이 걸릴 것" 이라고 농담을 하며 " 내가 처음 한국에서 일을 맡게 된다고 들었을 때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E-mail:jung.woo.lee@korea.army.mil

월간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매월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된다. 월간 카투사 신문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월간 카투사 신문은 용산 미8군 부대내 S2372에서 제작되며 전화번호는 723-4813이다. 해당 신문에 싣고자 하는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jung.woo.lee@korea.army.mil이다.

The KATUSA newspaper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8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8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The KATUSA newspaper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once a month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and 4,000 copies are distributed.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S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4813.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8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jung.woo.lee@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미8군 사령관
중장 데이빗 발코트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이용일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장교
중위 이준범
편집장
병장 이정우
기자
병장 최의진, 병장 김준식
병장 심영식, 이병 조준희
지원
병장 이 준, 상병 박지용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David P. Valcourt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Maj. Tanya J. Bradsher
Editor
Sgt. Lee, Jung-woo
Staff Writers
Sgt. Choi, Eui-jin, Sgt. Kim, Joon-sik
Sgt. Shim, Yung-sik, Pvt. Jo, Joon-hee
Additional Support
Sgt. Lee, Joon, Cpl. Park, Ji-yong

미8군 사령관 지휘권 이양식...

1면에 이어서...

나는 이것이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캠벨 중장이 이곳에서 몇 년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뿐 아니라 벨 대장은 캠벨 중장이 이루어 놓은 그동안의 업적들을 언급하며 그가 미육군에 끼친 큰 영향에 대한 치하도 잊지 않았다.

벨 대장은" 그의 멋진 리더쉽과 능력 그리고 그만의 사기 진작 방법과 언제나 임무를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들 모두가 복잡한 군조직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정치적인 상황에도 매우 적합한 것"이라고 연설 했다. 캠벨 중장은 지위권 이양 후 조지아주에 있는 포트 맥피어슨으로 이동하여 부사령관 겸 참모장으로서 복무하게 된다.

" 새로 부임한 발코트 중장은 훌륭한 지휘관이며 우리는 그가 미8군, 주한미군 그리고 한미연합사에 가져다 줄 특별한 경험 그리고 통찰력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B.B. 벨 대장

지난 4월 11일 용산 기지 나이트 필드에서 있었던 미8군 사령관의 지위이양식에 참석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B.B 벨 대장, 전 미8군 사령관 찰스 C. 캠벨 중장, 현 미8군 사령관 데이빗 P. 발코트 중장 그리고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미8군 주임원사 배리 C. 윌러 원사가 행사 진행을 위해서 단상에 서있다.

미군부사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카투사

사진 / 8헌병여단 공보실
글 / 8헌병여단 공보실 - 병장 정정우

8헌병여단 소속의 카투사들이 최근 미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94헌병대대 본부대 선임병장인 서동성 병장은 154명의 미군부사관학교 입교생 중 종합 2위를 차지했고, 142헌병중대의 심현철 병장은 종합 4위, 8헌병여단 본부중대 선임병장인 이석원 병장은 우수한 PT성적으로 아이언 솔져를 수상했다.

2006년도 04기수에서 2위를 차지한 서병장은,"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도 수상하게 되어 처음에는 다소 놀랐습니다. 제가 잘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서 병장은 94헌병대대 본부대의 선임병장으로서 카투사들을 잘 이끌어 부대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미군과 카투사 사이의 친선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대원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도록 돕고, 미군에게도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종합 4위를 차지한 심현철 병장 또한 겸손하게 수상소감을 밝혔다.

심병장은" 미군과 주변 동료들이 도와줘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현재 헌병이기 때문에 미군부사관학교에서의 경험은 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뛰어난 PT 성적으로 아이언 솔져를 수상한 이석원 병장은 평소 때부터 일과 후 꾸준히 운동을 하여 중대 APFT 시험에서 376점을 획득한 바있다.

이석원 병장은" 마지막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하자"는 말로 후임 기수들을 격려했다.

미군부사관학교는 부사관이 될 미군들이 거쳐가야 하는 과정으로 한 기수는 150여명 정도로 이루어진다.

그 중 10퍼센트 정도는 카투사들로 선임병장이 될 카투사들이나 군생활에 열의가 있는 뛰어난 카투사들이 미군부사관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미군부사관학교에서는 각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적에 따라 종합 4위까지의 장병과 검열 성적우수자, PT성적 우수자, 뛰어난 리더쉽을 보인 장병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미군부사관학교 입교생 154명 중 종합 2위를 차지한 94헌병대대 본부대대 선임병장인 서동성 병장.

우수한 PT성적으로 아이언 솔져를 수상한 8헌병여단 본부중대소속 이석원 선임병장이 미군부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카투사

In this issue

2면 군관련 소식
미군 부사관 학교의 우수 카투사

3면 군관련 소식
한국 음식의 날 행사
이달의 사진

4, 5면 안녕하세요
한나

6, 7면 부대탐방
STB (특수 근무 대대)

8면 영어교육
이정우 병장의 구어영어교육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월간 카투사의 부대탐방 코너는 전국에서 복무하고 있는 카투사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서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음식의 날’ 행사, 캠프 케이시에서 개최

사진 / 미 2사단 공보실 - 류후선
글 / 미 2사단 공보실 - 일병 이승혁

지난 23일 Camp Casey의 Thunder Inn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미 2사단 포병 여단 여단장 매트 메릭 대령과 미 2사단 주임원사 제임스 베네딕트 원사, 한국군 지원단장 이용일 대령, 미 2사단 지역대장 김성중 중령, 미 2사단 주임원사 서성기 원사 외에 많은 미 2사단 지원대장들이 자리하여 앞으로 포병여단 장병들에게 제공될 한국음식의 맛을 미리 체험하였다.

식당에 준비된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맛보기에 앞서 간단한 식전 행사가 있었다. 식사에 앞서서 매트 메릭 대령은“ 앞으로 한국 음식을 부대 식당에서 매일 맛볼 수 있게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에 한국군 지원단장인 이용일 대령은“ 미군 측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고 그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후 이용일 단장은 부대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식당 부사관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식전행사가 끝나자‘ 한국 음식의 날’ 행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온 장병들은 식당에 구비된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다. 이날 메뉴에는 닭 볶음, 불고기, 쌈장, 고추장, 김, 라면 등의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준비되어있었고, 새우깡 등의 한국 과자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 날 Thunder Inn 식당은 한미 양국의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며 어우러져 담소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이용일 대령은“ 한국 사람이 먹기에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한국 요리였고 특히 김치는 한국 식당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고 식사 소감을 밝혔고“ 이러한 한국 음식들을 카투사 병사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매트 메릭 중령에게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제공된 한국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던 제프 마틴 하사는“ 대부분의 한국음식을 좋아한다”고 한국음식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주로 외부 식당과 카투사 스낵바 등의 식당에서 한국음식을 접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부대 식당에서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미 2사단 지역대장 김성중 중령은“ 모든 메뉴가 한국음식으로 나오는 한국 음식의 날은 주한 미군 부대 식당에서는 최초로 열린 것이다”고 오늘 행사의 의의를 밝히고“ 이와 같은 행사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최근 한국음식이 부대식당에서 일주일에 최소 3회 제공되는 등 자주 제공되고 있어 카투사 병사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하였다.

미 2 사단 주임원사 서성기 원사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음식을 맛 볼 수 있어서 좋은 행사였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어서 카투사 병사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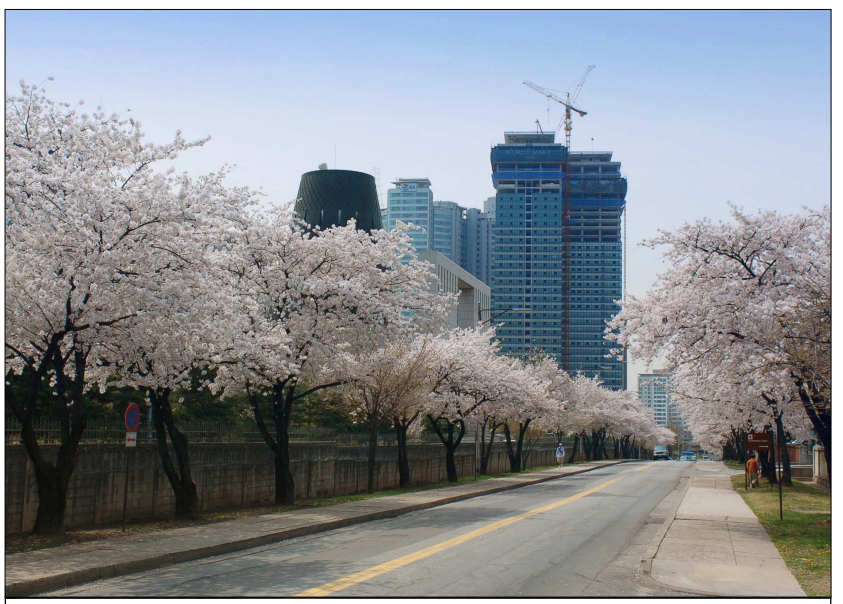
캠프 케이시 Thunder Inn에서 열린 한국 음식의 날 행사에 참가한 메릭 대령과 이용일 대령, 김성중 중령, 서성기 원사와 식당 부사관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hunder Inn 식당에서는 앞으로 날마다 한국 음식을 주 메뉴 중 하나로 제공하며, 4월 1일 부터 한국인 요리사 두 명이 한국음식을 요리하여 보다 한국적인 맛을 한미 장병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카투사

서울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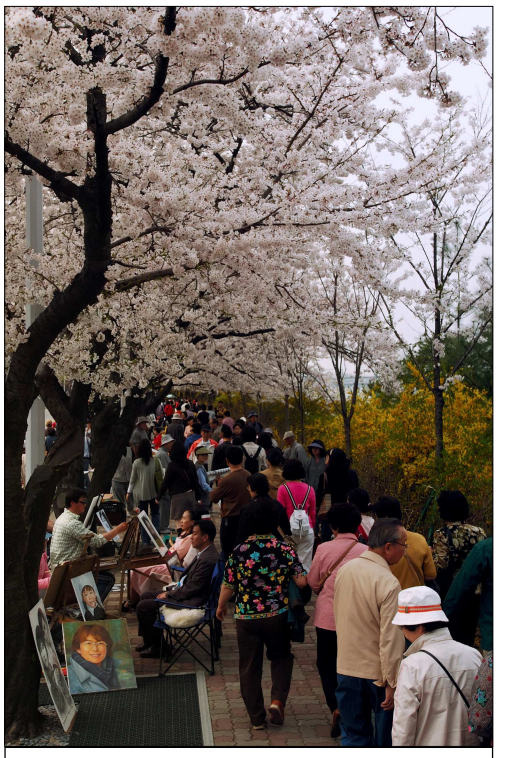
디자인 및 글 / 월간카투사 - 이정우
사진 및 설명 / 월간카투사 - 심영식



4월 중순, 벚꽃들이 용산 기지를 하얗게 물들였다. 미군 기지내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은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곁에 다가온 봄을 만끽 할 수 있었다.

따뜻한 이불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지는 겨울. 하지만 우리를 무기력하게만 만들던 겨울도 어느덧 따사로운 햇빛과 함께 찾아온 봄의 기운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곁에서 우리를 미소짓게 만드는 봄. 그것은 수 많은 꽃봉오리들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에도 찾아왔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1번 출구에서 시작해 3번 출구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벚꽃길은 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절경을 우리에게 선물했고 오고가는 많은 이들은 그 모습에 취해 잠시 발걸음을 늦추었다.

봄의 모습을 조금 더 사진에 담고 싶었던 기자는 여의도의 윤중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근에 기승을 부리던 황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윤중로에는 봄의 따사로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가족끼리 혹은 연인 및 친구끼리 함께 벚꽃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얼굴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서 기자는 봄의 매력에 또 다시 매료 될 수 있었다.



윤중로에서 시작된 4월 중순의 벚꽃 난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를 찾았다. 시민들은 벚꽃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카투사

안녕하세요 - '한나

"같이 들으실래요?... s카이... It's different" 아마 2004년 여름 즈음 인기리에 방영된 모 핸드폰 광고의 이 문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큰 뚜껑' 라면 CF 로도 패러디가 된 이 광고에서 벽에 기대어 음악을 듣고 있던 늘씬한 몸매의 여자 모델. 그녀가 바로 이번 호에 만나 본 가수 한나이다.

광고 속에서 만큼이나 여전히 매력적인 몸매와 큰 키, 섹시한 눈매 속에서 느껴지는 야성적인 매력이 인상적이다. 사실 한나는 2년전 '바운스'라는 곡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던 중고 신인이다. 그녀가 이번에 디지털 싱글 앨범 '럭셔리'로 다시 우리곁으로 돌아왔다.

정규 2집이 아닌 관계로 인터넷이나 핸드폰 벨소리 등을 통해서 5가지 다른 장르로 녹음 된 타이틀곡 럭셔리를 들을 수 있지만 하우스, 소울, 클럽 버젼등 다양하고 가창력있는 한나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미술을 해왔어요. 만들기나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별로 잘하지는 못한답니다." 외모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미술 쪽에도 재능이 있는 그녀는 미술고등학교 출신이다. 다재다능함과 끼를 지닌 그녀는 연기에도 욕심이 많다. 문득, 그녀의 큰 눈에서 비단 섹시함 뿐만이 아니라 의욕적인 열정이 엿보였다. "가수 활동, CF 뿐 아니라 연기에도 욕심이 많아요. 물론 핸드폰 CF가 계속 들어오면 좋지요. (웃음) 가수 활동과 연기 활동을 병행할 생각 이고요, 올 여름에 촬영하게

HANNAH

나, 편

인터뷰 및 글 / 월간 카투사 - 김준식
디자인 및 사진 / 월간 카투사 - 이정우

되는 뮤직비디오에서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연기를 할 예정이랍니다."

일에 욕심이 많은 열정적인 그녀지만 정작 성격은 약간 소심한 편이라고 한다. " 화가 나도 혼자 속에 삭히는 편이고요, 주로 혼자 술을 마신답니다."(웃음) 카투사에 대해 묻자 그녀는 들어보긴 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다. 육군과는 다르지만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한미 우호에 증진하는 ' 군사외교관' 이라고 일러 주었더니 잘생긴 카투사 한명 소개시켜 달란다. " 저만을 사랑해주고 자기일에 몰두하는 매력이 있는 사람…. 물론 잘생기면 좋지요. 근데 눈이 너무 크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별로에요." 이상형을 밝힌 그녀 앞에 마침 취재를 간 사진기자가 큰 눈에 쌍꺼풀이 있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적당한 크기의 눈에 쌍꺼풀이 없던 본 기자는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그녀답게 무대에서 라이브로 노래하는 모습으로 관객들을 많이 찾아 뵙겠다는 말로 앞으로의 당찬 포부를 밝힌 그녀는 곧바로 예정된 다른 일정 때문에 바로 이동을 해야 했다. " 군생활 힘드시겠지만, 항상 건강하고 밝은 생각으로 생활하세요. 2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웃음) 그리고 앞으로 저 한나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화이팅!"

글 및 사진 / 월간카투사-심영식

봄이 다가오고 벚꽃이 활짝 만개하던 4월의 어느 날, 기자는 아직도 조금 쌀쌀한 경기 북부의 부대로 취재를 떠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다. 2시간여 만에 다달은 동두천에 있는 Camp Casey의 맑은 공기속에서 오늘의 취재부대인 STB (Special Troops Battalion : 특수근무대대)의 임지훈 선임병장을 만났다. Camp Casey의 옆에 있는 Camp Castle에 주둔하고 있는 STB는 작년에 새로 생긴 부대라고 한다." 작년 9월 9일 부로 Camp Castle로 이사를 왔다"고 한 임병장은' 본래 122통신대대 D중대였는데 2005년 6월 15일에 해체되었다. 그리고 그해 7월 28일에 STB라는 이름으로 다시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새로 생긴 STB는 2사단 전체의 통신장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평시에는 언제라도 지원을 나갈수 있도록 차량이 100% 움직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차량에 값 비싼 통신장비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전시에는 항상 점검하던 장비들을 싣고 전차부대나 보병대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안테나를 세우고 통신 지원을 하는 임무를 한다.

STB에는 총 17명의 카투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크게 통신소대와 본부소대로 나뉘어져 있다. 통신소대는 또다시 SEN (Small Extension Node) 소대와 NC (Node Center) 소대로 나뉜다. 본부소대는 모터풀에서 정비병 및 통신병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PLL (Prescribed Load List : 공구 보급병)과 중대건물에서 일하는 화생방병, 보급병, 행정병으로 나뉜다. SEN은 차량과 통신장비들을 점검, 관리하는 일을 하며, NC와의 통신을 위해 장비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알아본다. 그리고 NC는 중앙 관제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차량과 발전기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통해 통신망을 관리하고 모든 통신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월간 카투사 - 상병 심영식

STB의 아침은 6시에 시작된다. 6시에 아침 점호를 한 후, Physical Training을 7시까지 한다. PT는 주로 달리기를 하는데, 주 3회 달리기를 하며, 한 달에 한 번은 대대 단위의 달리기와 매주 중대 단위의 달리기를 실시한다. 아침 운동 후에는 8시 20분정도에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다시 한번 포메이션을 갖고 일등상사와 중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각자 근무를 시작한다." 저희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실은 없습니다"고 말한 STB 알파중대 통신병 김연하 이병은" 차량을 점검하고, 차의 외관부터 차량 밑부분등을 점검하고, 험비 차량 뒤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곳에 있는 통신장비들의 갯수 확인, 점검 등을 한다"고 하였다. 또 그는" 12시에 점심을 먹고 난 후 다시 1시 30분경에 점심 포메이션이 있다. 그리고 오후 근무를 하는데, 오후 근무 역시 오전에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카투사 정신교육이 있고, 목요일에는 중대 영어 교육이 있다"고 덧붙였다.

STB의 주된 임무는 통신에 관련된 일들이 많다. 그렇기에 훈련을 나가서도 통신관련업무를 하게 된다.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정도 있는 훈련은 3~4일짜리부터 3주짜리까지 있다고 한다." 훈련을 나가서 우선적으로 하는 일은 그 곳에 생활을 하는 거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STB 알파 중대 무전통신 장비 운용병 김동현 일병은' 첫날에 텐트를 치고 위장포를 덮고 차량을 정리한다. 훈련마다 종류와 갯수가 틀리지만 보통 15미터 정도되는 안테나들을 세운다. 그 후에는 안테나에서 전파가 잘 전송되는지를 시험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24시간 대기하면서 발전기에 기름을 넣고 통신장비에 이상은 없는지도 확인한다고 한다.

김일병은 안테나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세우는 일이 힘들다고 하였다.

"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시된 훈련중에 5명이 3일동안 쉬지 않고 안테나를 세웠는데 전파가 통하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부수고 다른곳에 세우는 작업을 한 적 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아 8번을 반복해야 했다."

비록 훈련이 많아서 그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한다." 카투사들과 미군들은 거의 1년에 한 명씩 꼭 부대를 떠나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훈련시 몸을 테이

1. 부대 건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STB 중대원들.

2. STB 중대소속 무선 통신 장비 운용병인 오재민 이병이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3.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STB 중대원들.

프나 끈으로 묶어서 그 사람을 배경으로 다 같이 단체사진을 찍는 행사를 갖는다. 그 후에 테이프를 칼로 자르는데 실수로 군복까지 잘라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훈련동안 카투사들끼리도 많이 친해지고 깨닫는 것도 많다며 STB 알파 중대 무전통신 장비운용병 홍야곱 일병은 이야기한다.

" 훈련에 가서 다들 같이 생활하다 보니 서로 많이 친해지며, 그 친근감이 부대에 돌아와서도 계속 됩니다. 그리고 훈련에 가서는 제대로 잠을 잘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막사가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STB 부대원들은 단체활동을 중시하며, 서로 보다 친해지고자 노력한다. 임병장은 카투사들이 개인 시간이 많다 보니 단체 활동에 미처 참석 못하고 소외 당할 우려가 있어서 일주일에 여러번 다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월요일에는 일과가 끝난 후, 다 같이 모여서 PT를 한다.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등을 하며 서로 얼마나 발전했나 보기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농구, 축구, 라켓볼 등을 할 때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운동 말고도 여러가지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신우회를 열어 성경이나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 중대 카투사 회의를 매주 수요일 일과 후 1~2시간 정도 열고 있다. 이 시간에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필요한 점, 인사과에서 나온 전달 사항, 고민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임병장은 말한다." 특히 목요일에 4시간 정도 카투사들이 진행하는 영어 수업이 있는데, 시트콤' 프렌즈'의 대본을 가지고 공부하며 발음이 좋은 미군들과 함께 그 상황을 재연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며 임병장은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라고 한다.

특히 STB 부대원들은 미군과도 친해서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며 쇼핑도 함께 나간다. 그리고 봉사 활동도 함께 한다. 대략 5~6명의 미군과 카투사들은 일주일에 두어차례 6포병여단 한국군 부대 영어 교육 지원을 나간다." 일상 영어와 대화 등을 가르친다. 처음에는 인원이 많아서 가르치기 힘들었는데, 점차 익숙해져 가고, 정말 진지하게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장교분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임병장은 말했다. 하지만 일반 사병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없어 아쉽다고 하였다. 또 부대원들은 시립도서관에서 통역업무를 하기도 하고, 근처 고아원들을 돌며 봉사활동도 할 것이라고 한다.

월간 카투사 - 상병 심영식

미군들과의 관계는 봉사활동 이외의 곳에서도 나타난다." 평소에도 미군들이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고 신경써준다"고 홍일병은 말했다." 일과가 끝나면 미군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가지고 볼링장이나 페인트볼 사격,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주말에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우정을 쌓아간다"며 중대의 미군들이 카투사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친해지려고 한다고 이야기한다.

기자는 비록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부대보다도 더 단합되고 끈끈한 전우애로 뭉친 STB 부대원들을 볼수 있었다. 특히 사병들이 많은 Camp Casey에서 미군들과의 충돌 없이 서로 화합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역을 앞둔 STB 화생방 작전통제병 최명선 병장은 마지막으로 후배 카투사들에게 충고 한마디를 전했다.

" 군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군들과 일하면서 잘 지내고 보다 좀더 노력을 통해서 떳떳하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카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투사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

STB A 중대
이병 최영훈

부모님, 어느새 입대한지도 3달이 지났습니다. 막막하게만 보였던 군 생활도 이제 점점 적응되어가고, 저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 되어감을 느낍니다. 논산훈련소와 KTA 생활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련들이 제게 찾아왔었지만, 저는 입영날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소풍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며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써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단결!

STB A 중대
일병 김동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육군훈련소로 떠난것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비록 내색은 안하셨지만 저만큼이나 마음이 아프셨을 부모님. 훈련소에서 사격포상으로 전화를 드렸을 때, 반가워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있습니다. KTA 수료식날 부산에서 단걸음에 오시고 짧은 면회시간을 아쉬워 하시면서 어려운 곳으로 간다며 걱정하시던 부모님, 이렇듯 항상 저만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저는 항상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TB A 중대
일병 장재운

단결!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안녕하십니까? 부모님께서 제게 주시는 사랑과 관심에 비해서 저의 그것들은 한 없이 부족하여 죄송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어느덧 일병이 되어 이곳의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여름 논산에서 땀흘리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힘들고, 적응하지 못했던 시기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히 잘 지내올 수 있었던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당당하게,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사랑한다는, 감사한다는 표현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들이지만, 가슴 속 한 가운데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STB A 중대
병장 최명선

훈련소 시절 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며, 부모님께서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TA 수료식날 오셨을때에도 무척 반가워하시고 대견해하셨지요. 그리고 2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집에 들릴 때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시네요. 부모님의 그 사랑과 관심 때문인지 사고 없이 무사히 군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습니다. 2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평소엔 잘 느낄수 없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곧 군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절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정우 병장의

구어 영어

Sgt. Lee's

Colloquial English

제 3 장

1) Put someone in the tight spot = 곤경에 빠뜨리다.

='tight spot'이라는 단어의 뜻, 즉 누군가를 이른바'힘든 곳'에 둔다는 직역에서 우리는 이 표현이'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말의'진퇴 양난에 빠뜨리다'와 뜻은 비슷하나 어감은 속어인'빼도 박도 못 하다'와 훨씬 더 비슷하다. 유사한 표현으로는'put somebody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가 있으며 다소 저속한'give somebody hell(shite)'도 동일한 맥락을 띤다.

Ex) A : Hey, pal. What gives?
B : Today is not my day. It's like everything is working together to put me in the tight spot.

2) Come clean = 자백하다, 고백하다.

= 예전 70년대 우리나라에는 북파 간첩들을 대상으로 한'자수해서 광명 찾자'라는 표어가 있었다. 이번 표현'come clean'을 직역하면 앞서 말한 우리말과 매우 유사하다.'깨끗하게 나온다(?)'라는 다소 서투른 직역에서 우리는'무언가 숨기는 것을 털어놓고 깨끗해져라' 즉'자백하다'라는 뜻을 끌어낼 수 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spill the beans' 혹은'cough up' 등이 있다.

Ex) You can not avoid being convicted. Just come clean of the whereabouts of the accomplices. Then I'll curtail your sentence.

3) Play favorites = 편파적이다.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행동한다'는 직역에서 우리는 이 표현이'편파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편을 들다'라는 뜻의'take a side' 표현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 A : Hey, dude. Why do you think that judge played favorites?
B : That's unavoidable. Check out those Hooligans. If he were fair and square, he would be a dead meat.

4) While you're at it = 내친김에

='네가 거기에 있는 동안'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이 표현은'내친김에' 혹은'어디에 간 김에'라는 뜻이다. 이 표현은 타인에게 부탁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군 친구가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Town house에 간다고 생각해 보자. D-Fac에서 나오는 커피가 슬슬 지겨웠던 당신은 마침 타운 하우스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 이 때 다음처럼 말문을 열면서 당신의 친구에게 부탁을 해 보라. 그가 흔쾌히 부탁을 들어줄지 아닐지는 평소의 당신 행동에 달려있겠지만(!)… ….

Ex) A : Hey, bro. While you're at it, would you grab me a coffee?
B : Alrighty. But don't forget to get me some Korean snack from ROK PX, pal.

5) Feel up to ~ = 준비가 된 것 같다.

='up to'는'~에서 시작해서 ~까지' 라는 뜻인데, 이번 표현에서는'느끼다'의 뜻인 동사 feel과 함께 사용되어'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느끼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즉'~할 준비가 된 것 같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단 주의할 점은 이 표현에서 to가 전치사라는 사실이다. 즉 to 뒤에는 동명사/명사 상당어구가 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 A : Stud! Are you ready for the upcoming PT test?
B : Yeah, Actually, I feel up to scoring more than 300.

6) Put something behind = 안 좋은 기억들을 묻어버리다 / 잊다.

= 이번 표현은 직역 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가'무언가를 뒤에 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Something'에는 주로 대명사가 오며'the bad memories'를 받는다. 유사한 표현으로는'let bygones be bygones(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혹은'think something as water under the bridge(다리 밑의 물이 언제나 흐르는 것에서 착안)'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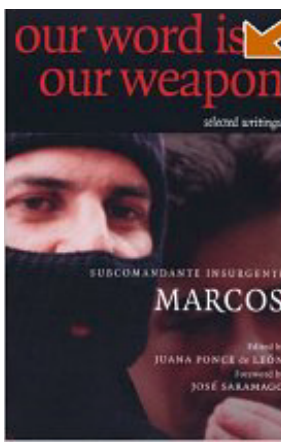
Ex) A : I heard that you have a traumatic experience on a car accident.
B : I was like that. But I put that behind then overcame it.

카투사

책

이 달 의

Our word is our weapon
마르코스 저 / 해냄 출간



1994년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봉기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부사령관 마르코스의 말과 글을 모은 이 책은 인류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고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오랜 열망을 담은 책이다.

마르코스와 사파티스타의 외침은 옳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희망을 제시하고 또 거짓과 불의의 세계에 눌려 정의와 진실을 놓아버린 우리들에게 인간의 용기와 존엄을 일깨워준다.

영화

이 달 의

미션 임파서블 III
톰 크루즈, 미셸 모나한 주연

최첨단 정보기관의 특수 비밀 요원이었던 이단 헌트(톰 크루즈)는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나 특수 요원 트레이닝에 전념하며 삶의 여유를 찾고, 사랑하는 여인 줄리아(미셸 모나한)와 행복한 결혼을 꿈꾼다.

하지만 그녀와의 약혼식 날, 급작스런 본부의 호출을 받은 이단 헌트에게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국제 암거래상 오웬 데비언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IMF 요원을 구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극악무도한 적과 자신의 조직에 맞서, 성공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한다!